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전략가 다윗 성경: 사무엘상 27장 1-12절
(Tag:다윗,전략,전략가,전략적인삶,구약,사무엘상)

1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보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2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육백 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3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렐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4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5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6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7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일 년 사 개월이었다라

8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9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10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겍과 여러무엘 사람의 네겍과 겐 사람의 네겍이니이다 하였더라

11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12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마음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삼상27:1-삼상27:12)

다윗은 전략가이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은, 전략적인 사람이 승리하고 살아남고 사명을 감당하고 더 보람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수많은 전략가들 틈에서 누가 승리하는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명석하고, 지식이 있고,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 있고, 시대를 읽는 감각이 있는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조건들은 단지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예를 들어 치밀하게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거나 기회가 주어진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 거기에는 영적인 요인이 더 필요하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분류한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물론 영적이긴 하지만 기도만 하고, 전략적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질들 잡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는가? 기도 했으니 기회는 준다. 어차피 그 공을 잡을 실력은 없으니 그 기회는 기도하지 않고 준비된 실력자에게 넘어갈 것이 아닌가? 그러니 실력을 연마하면서 기도까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다윗의 시대는 오늘과 많이 다르다. 이점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

-당시 팔레스틴은 부족국가 형태였으며, 강한 나라란 이런 부족들의 연합력이 강한 나라였다.(전략적 결혼.)

-보통은 단순한 씨족사회 수준이었고, 주변의 강력한 왕권 소유자에게 복종해야 하였다.

-하나님은 강력한 왕권을 요구하셨다. 그래야 사람들이 부족간의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정권을 세우는 것이 1차적인 정의가 됨.)

-결국 당시 그 지역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가장 중요한데, 그 다음으로 요단 건너 모압, 암몬, 갈릴리 위쪽 암몬(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 요단 남쪽으론 에돔.

-떠돌이 깡패 씨족사회(아말렉)가 정치적으로 가장 암적 존재 였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라 하심.

-다윗의 결혼은 대부분 정략결혼이었다. (다말,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달매) (뱃세바와는 치정 로맨스)

-다윗의 떠돌이 생활 자체가 당시에는 거의 아말렉 족속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다윗의 경건한 삶 때문에 그 속과 정신은 달랐다.

1. 다윗은 스스로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전략을 선택한다.

-다윗의 율법이란?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자에 대한 신성불가침

.조국의 땅에 대한 지리적 미련(자기의 미래 왕국)

.왕의 사위의 신분에 대한 미련(유사시 전공을 세워 신임을 얻겠다는 생각)

-다윗은 스스로의 율법 때문에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을 놓침

.그는 1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게 됨

.그는 아말렉 스텝지는 았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치외법권 지역에서 치안담당 보안관 노릇을 함.(나쁘게 표현하면 동네 깡패?) 그런데 차기 대권 가능성이 컸으니 중앙정부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 당함.

.다윗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에 보고하게

되고 그러면 파병-도주가 반복됨.

.세월에 지친 다윗은 자신의 율법(고집)을 내려놓게 됨.(사울에 대한 충성심, 조국 땅에 대한 미련)

2. 새로운 전략으로 주변 정세는 급변하게 되고 다윗은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함으로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다시 아기스에게 망명을 요청함.

.처음에는 급한마음에 치밀한 전략이 없는 단순 도주식으로 도망한 꼴이었지만, 이제는 6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치밀한 망명.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멀리 시골에 가서 거주함.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은 다윗은 하나님의 숙원 사업을 이룩함.

.당시 팔레스틴 땅에 암적인 존재인 아말렉을 진멸하는 사업을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어느 지역에 쳐들어갔다고 보고함으로 마치 동족에게 쳐들어 간 것처럼 생각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림.

.그는 아말렉을 쳐서 얻은 이득으로 살림이 껴고, 아기스를 비롯,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까지 선물을 보내면서 후일을 도모함.

-다윗의 망명은 결과적으로 전쟁을 불러옴.

.다윗의 용맹 때문에 주춤했던 블레셋의 정복 전쟁이 개시됨.

.다윗은 아기스 왕을 호위하는 주력부대의 역할을 자청함.

.그러나 다윗에 대한 두려운 추억 때문에 대부분의 블레셋 장군들은 다윗과의 출전을 반대함.

.다윗의 불출전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패전하게 됨.(블레셋이 노린 것

-사울의 최대 실수. 그에게는 충신 다윗이 절실했던 것. 그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것이 자기 가문의 살길이었음. 이 전투에서 사울 가족은 패망케 됨. 다윗은 재빨리 시글락을 부하에게 인계하고 자신은 헤르몬으로 이주해서 왕이 됨.-헤르몬은 전략적 요새.)

-하나님의 전략은 이 땅에 거룩한 전략가를 세우는 것.

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마10:16)

-특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IS, 동성애소수집단 이익단체등 소위 인권을 내세워 죄악을 합법화 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이 때, 교회는 전략적이 되어야 하고, 교인들은 전략적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 따로, 전략 따로가 아니라, 기도가 곧 전략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모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지출하며, 부요를 창출하여 누리며, 자율과 자유가 나태함과 방종으로 썩지 않게 하고, 욕심 때문에 진리인척 하는 거짓과 지식인척 하는 편협함에 속지 말라!

-각자의 삶에서 전략적이 되며,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략에 대한 허락도 받고 동시에 도움도 받으라! 아멘.

서남시찰 회원 선교수련회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